



다시 읽는 칼빈의 설교 ②

개혁신앙

(신 34:1-12, 수1:17-18)

‘모세’ 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히브리어를 좀 배웠을 건데, 이 말은 ‘건져내었다’ 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마샤’ 와 관련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모세’

란 말은 애굽어의 ‘메스’ 란 단어와 관련이 있다 하여 애굽 유래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 2:10에 갈대상자에 담겨진 채 떠내려가는 모세를 나일 강에서 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를 건진 애굽의 공주는 아마도 모세가 젖을 뿜 때까지 유모인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길러지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다시 공주에게로 돌아 왔을 때에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 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등장하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가 지은 것이 아니라, 아마 애굽의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지었으므로, ‘모세’ 란 말의 애굽 유래설이 더욱 더 강하게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강한 교훈을 줍니다. 더욱이 변천기에 있고 변천되어야 할 이 시점에서 신학 훈련을 받은

모세의 성공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발탁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수종에 있었을 것으로 완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기에 회신들과 하고, 하나님의 문헌을 것은 이모수령을 완수해서 종사할 때에, 하나님 인간을 쓰시는 그 보람을 인간 자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뒤 배출되어 교회의 일을 하게 되는 신학도들에게 강한 교훈을 줍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연계가 되듯이,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연계성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충성스러운 봉사를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기관에서 한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나 모임에 나가면 저와 같이 학교에서 몇 년 동안 지냈던 대부분의 중견들이 노회장이나, 시찰 회장 또는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능률한 모습을 바라볼 때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종강 예배를 맞이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많이 한 후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기는 이 장면을 바라 볼 때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34장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경이 모세 저작이라면, 신명기 34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합니다. 모세의 죽음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까지를 기록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이것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리 될 일을 기록



했다는 구구과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나 그런 분이 첨부를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첨가했다고 해서 오경을 전부 기록한 모세의 저작에 대해 무슨 하자가 있겠는가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았고, 애굽의 열 재앙에 매개체가 되었으며, 홍해를 갈라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천추에 변함없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위시한 이스라엘 종교인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종교제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그러한 입장도 되겠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증거에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며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큰 자라고 증거했고 하나님께서는 옳을 의인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파님 엘 파님’, 즉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특별한 주의 종이요 위대한 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 있는 산봉우리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바라보아라. 지금 네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인도하여 내었도다. 그 후에 본향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진 고락을 다 하며 수고하지 않았느냐? 너 나이 120세 인데, 지금 네가 인도한 이 백성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저 땅을 바라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그 높은 산 정상에서 다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일생이 거기 그 순간에서 마치게 되는 이 장면을 바라 볼 때에, 우리는 모세의 삶이 실패인가, 모세의 삶이 미완성품인가, 왜 모세가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34장을 자세히 읽어 보면, 여기에 너무나 확실히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대를 감독하고 그 무대의 연극 진행을 모두 지휘하는 사람은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장대한 구원의 행진과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팔을 들어 말씀하시고 또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육체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듯한 ‘신인동형론 (anthropomorphism)’ 과 같은 표현들이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신인동형론’이라 하며 기독교 신관에 있어서의 이방신과 유사한 사실 즉 인간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신관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는 판이하지만 여기에서는 인간에게 친밀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기로 한 땅이지만 네가 네 눈으로 보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민수기 20:12을 연상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0:12을 읽어보면 거기서 므리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



그 반석을 두 번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과는 다르게 그 반석을 내리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애석하고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실패자가 아니요, 모세의 생애는 불완전품이 아니라 성공자요 완전한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후에도 모세 전에도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귀한 칭찬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막 9:28을 보면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함께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나타났고,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거하는 모습을 예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모세는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봉사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단지 쓰일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순조로운 가운데 그만 두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시고자 하면, 이상하게 벌을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쓰임 받지 못하고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한 것을 보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저주이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출애굽 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게 기적적으로 40년

을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메추라기와 만나
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칠 족속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두 정탐꾼이 정탐한대로 가나안 땅에는
키가 크고 장대한 일곱 족속, 무술에 능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한 것과 같은 커다란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
님 편에서 생각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다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할 일
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라질 것이지만 진리는 행진합니다. “진리의
대행진을 막을 자 이 땅 위에서 그 누구리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교회에서 봉사 할 때 가볍고 즐거운 마음
으로 힘차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진리운동을 함에 있어서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변과 인간의 외모나 인간의 금력이나 인맥이나 권력은 하나님을 의지
하지 않습니다. 요 2:4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인간에게 의탁치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
이다. 교회생활이나 복음전도나 진리운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지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쓰십니다. 인간을 사용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에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어디서 판단이 되며 어떻게 측



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소위 '목회의 성공이나 실패'를 운운합니다. 평생에 유수한 신문에 이름이 많이 실리고, 많은 저서를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다가, 나이 들어서 10명의 자녀들 앞에서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둘러보고 앉아있는 가운데 비단 요에 누워서 약시발을 들고 마시다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반드시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공과 실패는 모세가 홍해 가에서 손을 들고 그 육지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환성을 지르는 것도 아니요, 모세가 호렘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내려오는 모습도 성공의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의 성공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발탁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다는 것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임무수행을 완수해서 종사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쓰시는 그 보람을 인간 자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역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행진의 대역사는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 행진의 대역사와 함께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학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애굽을 불신의 죄악의 종살이에 비유할 수 있고 홍해를 건넌 일과 광야의 생활은 중생생활의 지상교회의 신자생활에 비하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목적지 하늘나라에 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 한데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꾸준히 글을 쓰는 우리 교단의 중견 목사님인 박정덕 목사님을

나는 대단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번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박정덕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행진은 우리 구원의 행진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평신도를 위한 좋은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사용에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은 명령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 복종을 대단히 소중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 운동에 있어서 이 전통을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바통을 받거든, 너는 네가 새로이 받는 어떠한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지도해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이므로 하자가 별로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행동적으로는 에덴동산에서부터 전달되었고, 이제 기록되는 말씀으로 성문화된 계시를 볼 때 모세를 통해서 기반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 토대위에서 너는 신앙 운동을 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그 전통을 무시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 해 줍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은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난잡하게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은 고려신학대학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입학할 때 우리는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학칙에 고신교단 이외



의 학생에게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허락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알미니우스(Arminius)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고, 오순절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또는 전통적인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 신학사상을 아직 세밀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 전통적인 장로교 사상을 파악하고 좀 더 건전한 복음전파에 몸을 바쳐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학교는 교단에 속해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교단은 간관이 있는 교단입니다. 그 간관은 '고신파' 라기보다 '신앙고백' 이 있는 교단임을 말합니다. 우리 교단은 신앙고백을 지닌 신앙고백적 교회(confessional church)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seminary)도 신앙고백적 신학대학원(confessional seminary)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학교에서 제시하는 신학사상에 대하여 긍정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학위를 안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지만은 이 학교 강단에서 이 학교에 제시하는 신학사상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이 있는 학교요, 노선이 있는 학교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리는 신앙고백의 학교입니다. 물론 신앙고백이 신성불가침의 작품은 아니지요. 신앙고백이 성경자체는 아니지요. 그러나 니케아 신경에서 있는 많은 신조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신조가 더욱이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오늘에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많은 이 신조들과 고백들을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구구절절 성경에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9년간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교리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불 때에 구구절절이 성경과 관련된 건전한 고백입니다.

우린 교단은 장립집사 이상 권사, 장로들을 임직할 때, 그리고 목사를 임직할 때 '이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느냐?' 를 서약으로 받습니다. 1536년 제1 헬베틱 고백서(First Helvetic Confession), 그리고 1537년 제네바 신앙고백서(Genevan Confession), 1559년 프랑스신앙고백서(Gallican Confession), 1571년 39조 신앙고백서(Thirty-Nine Articles), 1619년 작성된 도르트신경(Canons of Dordt), 그리고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가운데서 큰 과오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적용에 있어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침례'가 성경적이냐 약식세례인 '뿌리기(sprinkling)'가 성경적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는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구절을 떼어 내어 적용할 때 그 구절이 어떠한 독특한 사상을 지지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지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이단이지만 여호와의 증인과 대화를 가져보십시오. 나도 종종 그들과 대화해보았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들의 입장을 지지할 만한 구절들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안식교도 성경에서 그들의 근거를 제시하는 성구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 모릅니다. 성경은 한 구절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는 편협된 해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후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하며, 하나의 성경해석이 다른 부분의 성경해석에 상치되지



아니하는 해석이어야 합니다.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를 제시하는 성구가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혼연히 그리고 겸손히 성경전반을 살필 때에 칼빈주의의 '예정론' 과 '하나님의 주권사상' 이 얼마나 우리 구원에 금자탑이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삼위일체교리, 이 교리는 오늘도 영원히 빛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빛나는 아름다운 신앙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의 신학대학원에서 고지식하게 어떠한 패턴을 따라서 편협되고 배타적인 강의와 신학훈련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강단은 한없이 시야가 넓은 강단입니다. 모든 학설을 사로잡아서 평하고 공개하고, 그 단점과 장점을 평합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이 학교에서 제시하는 학설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입장입니다.

우린 하나의 팀입니다. 하나의 전쟁입니다. 무기로써 적을 무찌르는 이와 같은 전쟁인데, 인간이 높아진 인간사상과 불신의 세력과 모든 사이비한 이러한 설들을 쳐서 이기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하고, 영적 무기를 조성하여 양성하는 신앙의 정병들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 잡음이 있고, 혼돈이 있고, 거기에 이론과 교육의 일관성도 없고, 어떠한 신학의 정립도 없다고 한다면, 이 학교의 교육은 공중에 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완전일치가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일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원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를 지도하던 교수님은 무천년주의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천천년주의와 세대

주의는 좀 다르지마는, 전천년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요 신앙이 대단히 보수주의자가 많다. 또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성구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성경전부를 살펴 볼 때 무천년주의가 오히려 나에게 더 확신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 학설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전천년주의자들에 대해서 조금도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존경한다. 나는 다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것이고, 주님 재림해서 우리가 승천할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올라 갈 것이다. 천년동안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올라갈 그때에 내가 전천년주의자들을 향해 보라! 내가 그때 그렇다고 아니 하더냐? 그렇게 내가 말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통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인격을 향상시켜서 지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 훈련 도장에서, 교관들 사이에 혼돈이 있고, 중구난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각기 '아멘! 아멘! 한다'면, 우리 학교 내부와 학설에 갈림길이 있어서는 건전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개혁주의의 이 모든 신경과 신앙고백서를 다 살펴보아도 제2의 축복, 중생한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그와 같은 사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이 주체(agent)가 된 그와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이 주체가 되어 세례를 준다고 하며 '성령으로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이 학교에서 붓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간판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방향이 있는 학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우리는 칼빈을 옳게 여깁니다. 물론 제네



바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석연치 아니한 일도 있긴 했지만은 그것도 구원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칼빈을 대항할만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칼빈이 다루지 아니한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학교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편을 잡고 있는 교수나 학생들이 학술지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 얼마든지 '누가 이런 말을 한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고 어떤 학생들은 이렇다' 와 같은 논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입장으로써 우리 학교가 40년 동안이나 가지고 나오는 이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가 내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율법을 기반으로 전통을 따라라"고 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전통적인 신앙고백의 학교, 신앙고백의 교회, 이 훈련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좀 부흥을 시켜보겠다고 여의도의 분을 보고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그건 다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좀 체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족대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앞서가신 성도들이 경건을 따라야 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의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면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경건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경건이 없습니다. 채플시간에 여러분들이 채플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가 강단에 서든지 매일 이 딱딱한 의자에 와서 충실히 앉아주는 내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과거 수년간 심하게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배시간에 천사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내 마음을 활짝 뒤집어 가지고 마음을 뜨끈뜨끈하게 만들어 주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이 예배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했는지 도중에 중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이 이상하게 된 사람이 성령을 받고 가슴이 뜨끈뜨끈 하다 해서 내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 보니까 자기가 '작은 감람나무' 라 하면서 가슴을 한번 만져보라고 해서 손을 넣어보니까 좀 따뜻하기는 하였습니다. 당신도 성령을 받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체온과 몸 바깥 온도가 차이가 나는데 손을 넣으면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려거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회에 나올 때에는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교수회가 지정해서 맡긴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여기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수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1시간 나아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경건이니 뭐니,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방학동안 깊이 생각하고 만약 이 학교가 따르는 신학사상이나 경건운동과 이 채플시간에 참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채플시간만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은 학교에 등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같이 1~2분 동안 소리를 모아서 방학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남아 있는 시험도 잘 치게 해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 1987년 12월 4일 고려신학대학원 경건회에서 행한 설교임 -